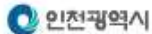
		보 도 자 료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
		배포일자 2021년 2월 15일(월) 총 4매		
담당 부서	대기보전과	담당자	• 산업단지환경팀장 박승일 ☎440-3421 • 담당자 박진성 ☎440-3422	
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e0f7fa; padding: 5px;">사 진</div>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e0f7fa; padding: 5px;">참고자료</div>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
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e0f7fa; padding: 5px;">보 도 시 점</div>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, 산업단지 환경오염 배출업체 특별 단속

-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·운영 등 위반사업장 9개소 적발 -
- 중대 위반사업장 사용중지 명령 및 고발 등 행정조치 실시 -
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지난 2월 1일부터 5일까지 관내 산업단지 소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대상 ‘설명절 대비 특별지도·점검’을 실시한 결과,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9곳을 적발·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.
- 시는 특별점검반 3개조를 편성하여 남동국가산업단지, 검단일반산업단지 등 관내 7개 산업단지 소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82곳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점검했다.
- 이번 특별지도·점검은 설명절을 앞두고 취약 시기에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행위 단속의 공정성을 유지하고,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환경오염 근절을 위해 시행되었다.
- 적발된 9곳의 위반 행위는 ▲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▲대기배출시설 미신고 3건 ▲대기배출시설 사용개시신고 미이행 3건 ▲대

기 자가측정 미 실시 1건 ▲대기방지시설 훼손·방치 1건 등이다.

- 시는 적발 사항에 대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건과 대기방지시설 훼손·방치 건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,
-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·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7 곳에 대해서는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의뢰 등 엄중조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.
- 사례를 살펴보면, ‘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·운영’으로 적발된 알루미늄 주조시설, 플라스틱제품제조시설 등을 운영한 업체들은 사업장 내 적게는 4대 많게는 10여대의 성형시설 및 도가니로 등을 설치·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.
- 주요사례를 보면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알루미늄 주물주조업체의 비철금속가공시설(도가니로 9기)과 지방일반산업단지 소재플라스틱 사출제조업체의 플라스틱제품제조시설(성형시설 12기), 검단일반산업단지 소재 목재가구제조업체의 입자상물질발생시설(재제시설 4기)을 관할관청에 사전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·운영하다가 적발됐다.
- 또한, 남동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일반산업단지 소재 도금 및 인쇄회로 기판 등 제조업체 3곳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면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하다가 적발되었다.
- 검단일반산업단지 소재 목재가구제조업체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면서 주기에 맞게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조업을

하는 상황이었다.

-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금속도금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기준치의 2.6배가 넘는 오염물질(TOC)이 검출(197.6mg/ l, 기준 75)돼 개선명령처분을 받았다.
- 라덕균 시 대기보전과장은 “산업단지 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·운영하면서 ‘설마 나 하나쯤이야’ 하는 사업주의 잘못된 환경의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”라며 “설 명절 등 특정시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산업단지별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과 미신고 의심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환경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.” 고 말했다.

- 7개 산단별 합동단속 82개소 중 위반사업장은 9개소로 위반율은 10.9%임.

주요 위반사례는 ▲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금속주조업체는 비철금속 가공시설(도가니로 등 9기), ▲지방일반산업단지 소재 플라스틱사출제조업체는 플라스틱제품제조시설(성형시설 12기) ▲검단일반산업단지 소재 목재가구제조업체는 입자상물질발생시설(재제시설 4기)을 사전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·운영(사용중지명령처분 및 고발조치)

▲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도금업체와 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 ▲지방일반산업단지 소재 알루미늄주조제조업체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면서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(경고 및 고발조치)

▲검단일반산업단지 소재 목재가구제조업체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면서 주기에 맞게 대기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조업(경고 및 고발조치)

▲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도금업체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치의 2.6배가 넘는 오염물질(TOC) 검출(개선명령)

- 9개 사업장 위반 및 조치사항을 살펴보면,
 위반사항은 ▲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▲대기배출시설 미신고 3건 ▲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3건 ▲대기 자가측정 미실시 1건 ▲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및 기구류 훼손·방치 1건
 조치사항은 ▲사용중지 3건 ▲병과고발 7건 ▲경고 5건 ▲개선명령 1건 ▲과태료 1